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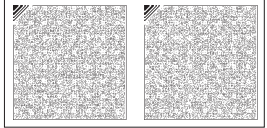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6년 3월 273호

(02) 796-4280 www.kappd.or.kr

**3 뉴스**  
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  
7가지 장애인 공약 제언



**12 특집**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17 국제**  
장애 아동 위한 의수  
디지털 혁신기술대회 대상



**21 시선8616**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 장애인정치세력화 실천전진대회 개최

지장협,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정치세력화 방안 제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 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제대로 된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장협은 3월 7일 글래드호텔에서 전국의 17개 시·도협회장 및 230개 시·군·구지회장 등 400여 명의 조직원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정치세력화 실천전진대회를 열고, 오는 4월 13일 총선에서 장애대중의 의지를 반영한 장애인 대표를 국회로 보낼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장협은 2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장애인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돌아보고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단결하자고 제안했다.

지장협은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장애인정치세력화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1단계는 장애인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계로 장애인의 정계진출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수준에 머물

렀으며, 2단계는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기로 장애 정치인의 교육 및 육성을 지원하는 단계였다고 구분했다. 그리고 이제 3.0 버전의 세 번째 단계는 장애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장애정치인의 연대와 장애인 권리 보장의 체계적인 정치참여 단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장애인 단결을 호소했다.

대회에서 「장애인 정치세력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은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임승환 부총장은 “장애인 단체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결정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며 “장애인 복지의 전문가인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할 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장협 부회장단이 나서 실

천 결의 발언을 펼쳤다. 김창환 대구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홍수 강원지체장애인협회장, 이진휘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 손영호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 순서로 장애인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박마루 서울시의원도 실천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장애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삶이 상승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장협이 앞장서자”고 호소하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제안을 가슴에 품고, 500만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담아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선봉에 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작성한 희망편지를 비행기로 접어 함께 날리며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염원했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4월 30일

잠실 일대 42.195km 치열한 승부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출발 모습.

오는 4월 30일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매년 개최하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장애인올림픽 육상위원회 공인 대회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기존에 치러지던 전문 휠체어 육상 선수들의 풀(42.195km)·하프(21.0975km), 핸드사이클 하프(21.0975km) 종목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경기인 스탠딩(10km)종목이 추가됐다. 이밖에 휠체어경쟁(5km) 부문, 비경쟁인 어울림부문(5km) 경기가 펼쳐져 전문 선수 이외에도 생활체육장애인과 마라톤을 즐기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회 참가자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지장협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찬한다.

<12면에 계속>

# 장애인건강법 추진 방향 모색

##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 전달체계 논의 첫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위한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2월 17일 국립재활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 단계적인 재활의료 공급체계 정립

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며, 법에 따른 추진 방향에 대해 장애인, 학계, 정부가 함께 토론을 벌였다.

먼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양종수 과장은 장애인건강법의 내용에 대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나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건관리 사업에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성별 등의 특성에 맞춰 검진하는 건강검진, 장애 발생 후 건강관리,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방문 진료, 건강보건 연구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정보 사업 등이 들어있다.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병원을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공공재활의료포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총괄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설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양종수 과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의 향후 방향으로 "장애 유형과 질환에 따른 단계적인 재활의료 공급체계를 정립해 각 개인에 적합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 질환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재활을 담당한다. 재활치료 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같은 지역거점기관으로 연계해 개인별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기 재활치료를 시행하며 주기적인 기능 상태를 평

가한다. 기능 상태에 따라 장애인 관련 의학적 처치 및 수술 필요 여부, 보장구의 적합성 등을 상세히 평가한다. 지역거점기관은 다시 복지관, 보건소, 주치의 등 지역 내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지역사회 기반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지역기관에서는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2차 장애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재활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플랜을 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건강법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작동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김용익 의원실의 최종 법률안에 들어있던 장애인단체 등 민간에 의한 모니터링이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건 연구사업 중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개발'로 대체됐다.

이문희 사무차장은 이 백서에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고려한 의료기관의 수, 의료의 질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지 측정하는 가용성과 모든 보건시설과 장비, 서비스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며 윤리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건강권에는 장애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으며 장애아동의 건강권 대책을 요구했다.

### 중앙정부의 책무 중요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단

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적절한 서비스 구축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 기대감을 표하며, 장애인건강법에 관한 과제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했다.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원의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중앙정부 사업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법이 보건과 의료서비스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성에는 동감하나 장애인을 치료와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장애인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애인구도 고령화하고 있다며, 고령장애인의 정책구상을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계속해서 '장애인건강법'에서 규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의 결과물을 통해 금년 말까지 장애인 건강관리체계의 구축 방향, 세부 사업별 시행 모델, 연도별 로드맵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이에 기반을 둔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보격차실태조사, 장애인 정보 활용 취약

### 접근성 80%...활용은 일반 국민의 60% 수준

장애인들의 스마트정보화 접근성은 높지만, 실질적인 활용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월 2일 전국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등의 정보격차 수준을 조사한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대상자 총 1만 7500명 중, 장애인은 2700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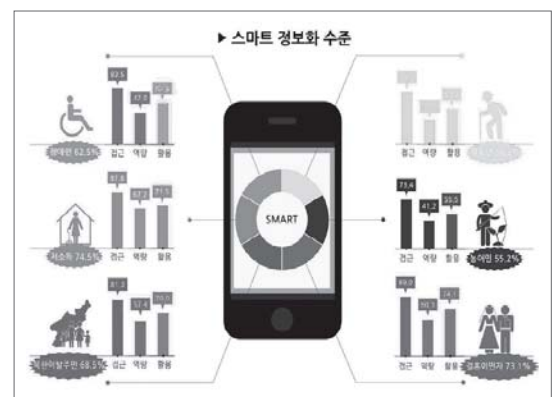
조사결과 국민의 유선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79.5%로 전년(76.6%) 대비 2.9% 향상됐다. 스마트정보화수준은 59.7%로 전년(57.4%) 대비 2.3% 개선됐다. 이중 장애인의 유선 PC 정보화 수준은, 75.1%였지만, 문서작성 등 실제 이용 능력은 66.1%, 활용은 64.1%로 낮았다.

모바일 등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83.5%의 접근성을 보였지만,

이용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각각 47%, 62.4%로 떨어졌다.

종합적인 수준은 62.5%로 저소득층(74.5%), 북한이탈주민(68.5%), 결혼이민자(73.1%) 등 보다 낮았다.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은 "향후 국내 환경변화를 고려해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보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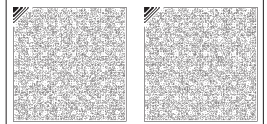


스마트 정보화 수준. ©미래창조과학부

차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스마트격차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당사자의 삶을 바꿀 7가지 정책

## 2016 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 공약 반영 요구

2016 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8개 장애인당사자단체가 모여 결성한 총선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 개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거쳐 공약을 완성했다.

공약은 법·제도, 자립생활, 노동, 접근, 교육·문화, 건강, 주거 분야로 총 7개의 테마 속에 32개의 세부 요구안으로 구성했다.

총선연대 측은 “장애인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으로 공약을 구성했다”며 “이번 공약집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기본법 제정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 사회 통합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한데, 이 방향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담겨 있는 목적과 내용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내 장애 관련 법률의 방향과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예산제도화, UN장애인권리협약 완전 비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 승격을 제안했다.

###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활동지원제도 전면 개편 및 활동지원 시간 확대,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

계 강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제도화를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정책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활동지원제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7~8%의 인상을 보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는 3%대의 저조한 인상을 보였다.

예산 중 75%를 차지하는 활동지원 인력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25%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기관의 사회보험료 등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총선연대는 “유명무실한 제도와 예산은 최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장애 정도에 따른 해고예고제도 조정, 중증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고용 기간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재취업이나 기초생활보장 진입까지 장애인 실업수당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기간 및 급여 개선,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공기업 설립,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확대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장애인 주차 민원과 주차장에서의 장애인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총선연대는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법률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며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저상버스 전국 100% 실시와 특별교통수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국가와 광역단체장의 책임이 아닌 시·군의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입과 운영에 미온적인 곳은 이동권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 예산지원 및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가 1·2급 장애인 200명이라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100명당 1대로 하향 조정해 증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에 불과했다. 총선연대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평생교육진흥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개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레저 개발,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 공약자료집

2016. 02

2016 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



2016 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 공약자료집.

### 사회복지 지원 제도와

장애인건강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건강권 관련해서도 상세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총선연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초기 사회복지 지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천적 신경인성 방광 도뇨 카테터 요양비 지원, 회귀질환관리법 이행촉구 및 예산 확보, 장애인보장구 지원 현실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지원금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 장애인주거안정법 제정

총선연대는 현재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은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거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두고 있어 장애인 예견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개조비 지원 및 임대아파트 지원 등 있으나 장애인 지원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71%가 저소득층이지만 공공임대주택 보급 140만 호 중 장애인에게 돌아간 주택은 3만 7천 호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총선연대는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인주거안정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법에는 임대아파트 1층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건축물 건립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 자립생활의 중장기 로드맵 논의

## 한자연, 2016 자립생활 컨퍼런스 개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한자연)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2016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자연 창립 10주년과 제9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양일간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애계·정계·학계 등 관련인사 천여 명이 모여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 자립생활의 중장기 로드맵 구축

먼저 컨퍼런스의 문을 여는 전체회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주제로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에선 이와 다르게 '탈시설'과 관련한 정책이 부재하며, 향후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육성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탈시설-자립생활지원과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이원화한 지원체계가 아닌 이를 통합해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관련법을 제·개정해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과 예산 확대, 동료상담가 양성 지원 확대, 질 높은 서비스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전체회의의 진행을 하고 있다.

제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 탈시설 전환 지원 시급

다음으로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의 주거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시설종사자와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탈시설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조한진 교수가 2012년 시설 거주 장애인 5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중 57%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기관은 전무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2010년부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해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의 다른 지방 거주 장애인은 서비스 전환

상당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조한진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소 매년 1회 이상 탈시설 욕구를 조사하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모델로 미국의 MFP(Moeny Follows the Person)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MFP는 시·도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원을 보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조사하고, 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조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탈시설 전환 계획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탈시설 전환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는 장애인 임대주택 확대,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장애인 주택서비스 제공, 장애인 주거권 보장의 지표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 수요자 위주의 활동지원제도 전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활동지원제도의 전망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하며 차별받지 않는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국가예산에 장애인의 기본권을 맞춰서 딱 그만큼만 서비스를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활동지원제도를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부합하게 실현하려면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김동기 교수는 먼저 장애아동 분리를 제안했다.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과 학습지원이고, 성인 장애인에게는 선택과 결정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이 필요하므로 이를 분리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전제로 한 개인별 급여 산정 방식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인정 점수에 의한 인정등급을 4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정공급을 더 세분화 해 수급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실적인 서비스단가 도입, 노인과 장애인을 연계한 활동지원제도 정비, 합리적인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에서의 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자립생활센터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등의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2016

##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 대회 개요

- 일 시 : 2016년 6월 3일 (금) 13:30 예정
- 장 소 : GLAD 호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내 용 : 모범배우자상표창, 리프로포즈 사진촬영, 힐링토크쇼 등
  - \* 시상 : 장한배우자상(전체대상), 아름다운배우자상, 자립상, 가화상, 모범가정상 등
  - \* 수상자 특전 : 장관 및 대회장 표창, 부상전달, 새보람 수기 연재 등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협회
- 후원예정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KBS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2. 17(수) ~ 3. 31.(목)
-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부부 또는 가족사진 1장, 수기(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또는 A4용지 2~3매)
- 접수방법 : 우편 및 메일 접수
  -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협회
  - \* 메일 : ajhred@naver.com
- 문의전화 : 안자혜 02)2289-4322

# 인권위, 성폭력 발생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 회복 불가능...장애인 전원 분리 조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남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지난 2004년 설립한 이 시설은 2014년 관할 행정기관의 실태조사에서 원생 사이에 성폭행과 성추행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상급 행정

기관의 심층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적발돼 개선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유사한 성폭력 행위가 계속됐다.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40명 가운데 17명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강간 등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제2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지

료를 소홀히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의 4 제1항은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측은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올해 다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시설 기능 회복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상임대표 안진환)는 “문제의 거주시설과 실태조사를 시행한 관할 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주 장애인 분리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편의와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솔루션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을 원하는 이는 누구나 솔루션 사무국으로 전화(02-783-0067)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가능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장애인 개조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쉬워졌다.

경찰청은 2월 12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

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은 9인승 이상이라는 승차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어린

이 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장애아동의 통학버스 등록 요건 현실화’를 요구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개

## ‘내일(Work)은 맑음’ 접수

### 장고협, 역량 강화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는 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내일(Work)은 맑음’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공모분야와 관련한 진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획했다.

1회에는 문문·산문 부문 관련 교육을, 2회에는 사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3회에는 SNS 활용 교육을 한다.

대상은 구직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이며, 교육비는 전

액 무료다. 장고협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취업재활팁을 통한 구인업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취업 교육 자료집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고협 홈페이지([www.kesad.or.kr](http://www.kesad.or.kr)) 공지사항을 통해 볼 수 있고,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02-3210-4056)하면 된다.



‘내일(Work)은 맑음’ 포스터.

## ‘알기 쉬운 장차법’ 도서 인터넷 배포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발간, 『우리 모두 소중해!』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서 『우리 모두 소중해!』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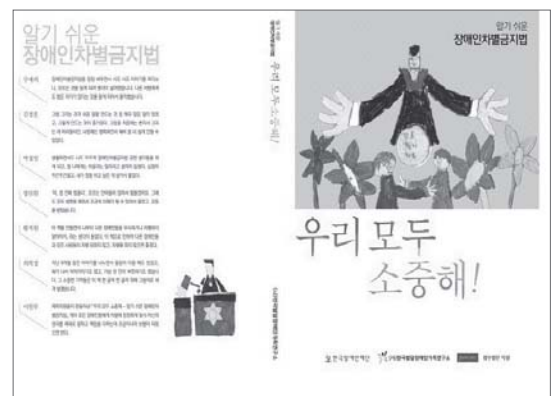
연구소는 지난해 10개월간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룹을 구성해, 당사자 관점으로 법조항을 재해

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우리 모두 소중해!』로 제작했고, 지난해 12월 도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만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새터민, 다문화

가족도 차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사진과 그림을 다수 사용했다. 장애부모, 관련 기관, 전국 공공어린이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배포했다.

도서는 연구소 홈페이지([genaprde.org](http://genaprde.org)) 자료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우리 모두 소중해!』 책 표지.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 볼라드, 6개 중 1개는 불법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팔뚝, 일명 ‘볼라드’가 전국에 약 26만 개 이상 설치돼 있다”며 “이 중 16.3%에 해당하는 4만 3479개는 법정규격을 어긴 불량품으로 교통약자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3월 7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 설치한 볼라드는 26만 6379개 이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만 7275

개로 가장 많이 설치했고, 서울은 4만 1737개, 충남 1만 9349개, 대전 1만 8039개, 광주 1만 6199개, 경북 1만 4059개 순서로 나타났다. 충북과 경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은 1.5m를 준수해야 한다.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

드러운 합성수지를 쓰고 밝은색 반사 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0.3m 전면에 점형 볼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볼라드는 전국에 총 4만 3479개나 된다. 불량 볼라드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9752개에 달한다. 다음으로 대전은 7081개가 법정규격을 지키지 않았다. 불량 볼라드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가 50.1%, 강원 46.1%, 대전 39.3%, 전남 23.7%, 서울 23.4% 순서였다.

볼라드로 인한 민원도 많았다. 서울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552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주요 내용은 파손으로 인한 정비·교체·철거 요청, 석재 볼라드 등 재질 불량 시정 요청,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신설

요청 등이었다.

또 지난 3년간 볼라드 4만 3239개를 개보수한 비용은 97억 원이 넘었다. 현재 개보수가 필요한 볼라드 4만 3479개를 정비하는 데는 108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볼라드 소관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긴밀한 협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극희귀질환 건강보험 부담 대폭 경감

## 본인부담 10%, 산정 특례 8500명 혜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비교적 진단 기준이 명확한 희귀질환 151종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왔다. 누적등록자 103만 명이 외래 입원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률 10%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발병 우려가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승인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꾸준히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클리닉을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4곳을 추가로 등록했다.

질병 코드가 없고,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1차로 검토해 44개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연간 대상자는 8500명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승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장애인 · 노인 민원 대화로 해결

## 구술 내용 담당자가 문서로 작성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때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 불러주기로 해도 된다.

정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 즉 5

가구 이상이 연계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또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 감사부서 등이 조사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처리 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새 법령은 또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했다.

#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문턱 낮춰

## 학점 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가능

지난 2월 2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개정안에서는 올해 3월부터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두어야 해 수요가 크게 늘 것

으로 예상,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8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장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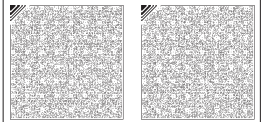
개정안은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

한편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나 장애 영유아교사는 장애아 3명당 1명 이상이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올해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017년 3월에는 만 4세 이상, 2018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서대문구 지체장애인 2016 전진대회

## 회원 교류확대와 장애인 정치세력화 다짐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지회장 황재연, 이하 서대문구지회)는 1월 28일 서대문구 지체장애인 2016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우리의 행동을 빛나게 하자」를 주제로 열린 전진대회는 박마루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시작했다. 황재연 지회장은 대회사로 “지난해 지회에서 주최한 나들이에 다른 때보다 많은 회원이 함께 교류하고 화합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서로 가족처럼 돌보며 살아가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올해 우리는 장애인 정책 반영을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거 이후에도 장애인이 선택한 후보에게 신뢰감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서 손영호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은 “총선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영입해 장애인 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당과 후보를 지

지하자”고 말했다.

또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과 합심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고, 우상호 국회의원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고문으로 활동해 온 정두언 국회의원 앞서 장애인당사자를 영입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정치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회는 이후 ‘우리의 신조’, ‘만세삼창’을 끝으로 종료했다.



서대문구 지체장애인 2016 전진대회 기념촬영 모습.

## 경기편의센터 혁신 대토론회

31개 시·군센터장 및 기술요원 100여 명 참여



경기편의센터가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기호, 이하 경기센터)는 도센터 및 31개 시·군 센터장과 기술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데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월 24일 양평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및 편의증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확립’이라는 주제로 시·군센터장 및 기술요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나눴다.

경기센터 이진욱 국장이 주제발제를 맡았고, 경기센터 김원종 사무처장 및 전문가 5명이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센터장 및 기술요원의 역할, 외부 단체와 협력 방안, 투명한 편의센터 운영’ 등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호 센터장은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수렴해 공신력 있는 센터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대구지장협, 일당장학회 장학금 전달

저소득 장애학생 지원할 것



대구지장협이 저소득 장애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는 2월 24일 덕영빌딩에서 협회장 및 부회장, 구·군지회장 및 부회장, 감사, 일당장학회 이사장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일당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창환 협회장은 저소득

장애인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올 한해도 소외된 장애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을 토론토하고 의결했다.

## 경북 휠체어컬링팀 전국체전 우승

경북지장협 의성군지회장 황사흠 감독 활약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둘째 날인 2월 17일 황사흠(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장) 감독이 이끄는 경북 휠체어컬링팀이 정상에 올랐다.

경북은 이날 16강에서는 세종을 꺾고, 8강에서는 충남을, 4강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경기마저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선 전통의 강자 강원을 만났다. 8엔드 4-4동점 상황에서 주장 노병일(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 감사) 선수가 스톤을 티에 근접시켜 5-4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 냈다.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경북 휠체어컬링팀.

황사흠 감독은 “워낙 막강한 팀을 만나 쉽지 않았지만 우리 선수들을 믿고 침착하게 작전대로 경기를 치렀다”며 “분명히 기

회가 올 테니 놓치지 말자고 독려한 것이 주효했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 포항시지회 청년후원회 ‘다울’ 출범

2040세대로 구성된 순수봉사조직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 산하 청년후원회 봉사단 ‘다울(회장 박정길)’이 3월 4일 UA컨벤션에서 발대식을 하고 출범을 알렸다.

‘다 함께 어울리다’라는 뜻을 내포한 다울은 2040세대 청년으로 구성된 순수봉사조직이다. 나이, 직업, 장애 여부 등 장벽이나 허물없이 어울려 봉사를 펼칠 예

정이다.

다울 박정길 회장은 “초대회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소외된 장애인을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는 박명제 국회의원, 김일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시 관계자 및 지역 단체장 등 내빈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대찬병원, 인천지장협 후원

## 연수구 · 중구도 기부 손길 이어져



대찬병원이 인천지장협에 쌀과 라면을 전달했다.

인천 대찬병원이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임순봉, 이하 인천지장협)에 쌀과 라면을 후원했다.

2월 10일, 설을 맞아 인천지장 협을 찾은 정대학 · 한상호 대찬 병원 대표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 기부를 활성화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 상으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기 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순봉 협회장은 고마움

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대찬병 원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4일에는 인천 연수 구지회(지회장 정인식, 이하 연 수구지회)에서 ‘명절맞이 사랑 의 후원물품 지원 행사’를 개최 했다. 행사에서 한국가스공사 인 천기지본부가 275만 원을, 한국 전력공사 남인천지사가 50만 원 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후원했다.

이에 연수구지회는 라면 20개

짜리 300박스를 구입해 지역 저 소득장애인 300여 세대에 전달 했다.

이밖에 인천 중구지회(지회장 최수환)도 2월 6일 삼성물산 송 도 엠코코리아 K5공장에서 라면 100박스, CJ 2공장에서 콩기름 200병, CJ 제일제당 냉동식품공 장에서 식용유 200병과 설탕 60 봉을 후원받았다. 후원품은 지역 장애인 400여 명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나기를 기원했다.

## 제주편의센터, 총선 투표소 점검 기표대 접근 및 안정성 확인



제주편의센터가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 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 원센터(센터장 부형종, 이하 제 주센터)는 오는 4월 13일 제20

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표소의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제주센터는 2월 23일부터 24 일까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와 함께 제주시 8곳, 서귀포시 7 곳에 설치되는 모든 투표소를 직 접 찾아 살폈다. 주요 점검사항 은 기표대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 한지, 휠체어 이동통로는 적정한 지 등이었다.

점검에 참여한 센터 관계자는 “이번 기표대는 전동휠체어까지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이전보다 안정성이 강화돼 투표하는 데 불 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만족감 을 나타냈다.

한편 제주센터는 투표소 설치 가 완료되는 3월 말경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 구리시지회, 대보름 척사대회

### 구리경찰서와 ‘장애인 안심 지킴이’ 협약



구리시지회가 구리경찰서와 ‘장애인 안심 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 리시지회(지회장 박해일, 이 하 구리시지회)는 2월 19일 사무실 앞 게이트볼구장에서 회원과 관계자 약 350여 명 이 모인 가운데 ‘2016년 대 보름맞이 척사대회’를 개최 했다.

박해일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리시에 등록된 8500 여 명의 장애인 중 절반 이상 이 지체장애인”이라며 “책임 감을 갖고 장애인의 권익 향 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구리시지회 는 구리경찰서와 ‘장애인 안

심 지킴이’ 협약식을 진행했 다. 이번 협약은 구리시 장애 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 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리경찰서는 협약 이후 분야별로 전담수사관을 운영 하고, 구리시지회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와 안전을 도 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척사대회에는 새누리당 박창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 원을 비롯해 구리시의회 신 동화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 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 김천시지회 정기총회 개최

### 시 관계자, 대의원 대상 복지시책 설명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 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2월 25일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대 의원 50여 명과 김천시청 복지 위생과 장애인계장 등 시 관계 자가 참석한 가운데 ‘26기 정기 총회 및 2016년 복지시책 설명 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지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보결임원 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고했다.

박선하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천시지회가 정기총회 및 복지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6년도에도 김천시지회는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질 적인 복지서비스를 전개해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편견과 차별 없 이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 겠다”고 전했다.

축하공연으로 김천하모니카

동호회 박정애 씨가 ‘아 목동 아’, ‘사랑으로’를 연주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감사와 업무실적 및 결산을 보고

한 후 2016년 예산과 사업계획 을 승인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 복지시책 설명회를 진행한 후 마무리했다.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 기원

## 전남지장협, 장흥군과 안정적 관람 환경 제공 업무협약



전남지장협이 장흥군과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안정적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곤, 이하 전남지장협)와 장흥군(군수 김성)이 손을 잡았다.

지난 2월 16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양측은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관람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남지장협 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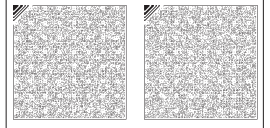
곤 협회장과 산하 21개 시·군 지회장이 참석했고, 군청 측은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가 자리를 메웠다.

양측은 향후 박람회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도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합의했다.

한편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서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전북지장협 '희망 투어' 간담회

### 순창군지회 시작으로 시·군 순회



김형곤 협회장이 순창군지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지장협)가 지역 장애인의 희망을 밝히는 여정을 시작했다.

전북지장협은 2월 15일 순창군지회(지회장 김문곤)를 시작으로 지회와 협회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희망 투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희망 투어는 지회 현황 설명과 지회 발전 방안에 관해 회원과 토론했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형곤 협회장은 순창군지회와의 간담회에서 "지회 발전을 위해서는 분회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주기적으로 분회장 회의를 통해 회원 간의 소통과 지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회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와 회원 배가운동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작은사랑후원회 장학금전달식

### 대전 동구지회, 저소득 장애인 자녀 28명 지원



제15회 작은사랑후원회 장학금전달식 기념 촬영.

지난 2월 26일 '제15회 작은사랑후원회 장학금전달식'이 열렸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지회장 최재천, 이하 동구지회)는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고자 28명의 학생을 선정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9명(30만원), 중학생 4명(40만원), 고등학교 6명(45만원), 대학생 9명(50만원)으로 이들에

게 총 장학금 1,15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구지회의 장학금 후원 모임인 '작은사랑후원회(후원회장 박종진)'는 지역의 장애인가정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자 2009년에 신학금속 정찬욱 회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회원이 80여명에 이르며, 누적 400여명의 학생에게 약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 군산시지회, 2016년 정기총회 개최

### 운영위원과 회원 모여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다짐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전기수)가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을 다짐했다.

3월 4일 지회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총회에는 운영위원과 회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기수 지회장은 "2016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군산시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말했다. 군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상임부회장으로서 장애인 체육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시지회가 정기총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내빈으로는 김관영 국회의원과 전북 육외광고협회 군산

시지부 김백규 지부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 유성장북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진행

### 장애인 140여 명 화합하며 건강 기원



유성장북에서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장애인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척사대회를 진행했다.

2월 22일 복지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척사대회에는 장애인 1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장애인들은 한국과 윷놀이를 통해 화합하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다.

유성장북은 대회를 마무리하며 한전원자력연료의 후원으로 부럼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 북부장복, 인강원에 사회공헌 활동

## 복지관 이용고객 '받은 사랑 나누기'



북부장복 장애인 이용고객이 인강원 식당 벽에 페인트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겠다며 봉사활동을 해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은 3월 2일 18번째 개관 기념을 맞아 복지관 이용고객과 직원들이 함께 도봉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같이 걷는 가치 있는 길'을

주제로 한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인 이용고객과 직원이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의미로 기획됐다.

북부장복의 지체장애인 이용고객 23명과 복지관 직원 30여명,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인강원에서 5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매일 식사를 하는 식당의 환경개

선 봉사활동을 몸소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손지숙(가명, 52세) 씨는 "장애를 입고 나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보람을 느꼈다"며 "지속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밝혔다.

또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지역 장애인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꿈아이 스포츠교실, 재활승마 체험 아산장복, 장애아동의 꿈을 현실로



장애아동이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있다.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이창호 관장) 꿈아이 스포츠교실은 장애아동의 특별활동으로 재활승마를 체험했다.

2월 26일 장애아동과 담당교사, 자원봉사자 등 8명은 경기도 화성시 궁평 승마클럽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말에게 먹이 주기, 소통하기, 재활승마 체험하기, 야의 기승, 인근 화옹방조제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한 참가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동물과의 교감에 즐거워했다"며 복지관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산장복은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능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감각운동으로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꿈아이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홍성군 '푸르미밴드' 공연 기부

### 가계곤란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푸르미밴드의 단체사진.

충남 홍성군에서 음악으로 봉사와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결성한 '푸르미밴드'가 지난해 정기 자선공연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전액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천규, 이하 홍성장복)에 재가장애인 생활지원을 목표로 지정 기탁했다.

이에 따라 홍성장복은 2월 16일 극심한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재가장애

인 김 모 씨의 유류지원과 5인 가구 재가장애인 최 모 씨의 생활비 지원으로 기탁금을 전달했다.

홍성장복 관계자는 "푸르미밴드의 기부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 이웃에게 햇살 같이 따뜻한 사랑이었다"며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지역 곳곳에 다양하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진천장복-진천군보건소 의료지원 맞손

### '건강관리의 날' 공동 홍보해 장애인 복지 증진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복)과 진천군보건소(소장 이재은)가 상호 건강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 7일 복지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한명수 관장은 "진천군보건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

다.

진천군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매월 하루를 '건강관리의 날'을 지정하고,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혈압, 혈당, 고지혈 측정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다.

진천장복 측은 지역 장애인에

게 건강관리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진천장복과 진천군보건소가 건강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남남부장복 '이동세탁지원서비스' 운영

### 매주 5회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 가정 대상 시행

충청남도남부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미, 이하 남부장복)은 지역 내 가사행능력이 어려운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정을 위해 '이동세탁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월 2일 시작했으며, 매주 5회 실시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이동세탁지원서비스는 이

동세탁차량으로 공주시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 가정의 이불 및 의류를 세탁에서 건조까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남부장복 측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각 마을 이장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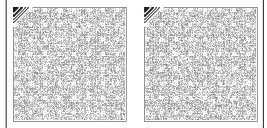


충남남부장복이 이동세탁차량으로 세탁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관 담당자는 "복지사 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장애인의 위생을 지원하는 이동세탁지원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인 안경 제작 지원

## 의정부장북, 다비치안경과 시력지킴이 봉사



의정부장북과 다비치안경 의정부역점이 저소득층의 안경 제작 봉사를 시행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수요일, 의정부 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희, 이하 의정부장북)과 다비치안경 체인이 함께 안경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의정부장북에서는 (주)다비치안경체인의 눈 건강 시력지킴이 봉사단 서울경기지부를 주축으로 의정부시 무한돌봄 행복팀, 초록우산 의정부마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정부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력측정과 안경테 선정, 렌즈 제작, 배송 등을 지원했다.

다비치안경 의정부역점 지점

장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안경 제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을 돕게 돼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의 주축이 된 의정부장북 이춘희 관장은 “의정부시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전문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나눔 행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비치안경과 의정부장북은 의정부시 저소득층의 눈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요리활동 통해 자립능력 상승

## 영천장북, 주간보호센터 이용고객 적극 참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북) 주간보호센터는 여가활동 지원 사업으로 요리활동을 진행했다.

2월 24일 지적 및 자폐성 1, 2급 등록 장애인 이용고객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리활동은 유부초밥 만들기 도전이었다. 장애인들은 유부초밥을 만들며 스스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요리활동 프로그램은 주간보호센터 이용고객이 간단한 요리 기술을 습득해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매월 1



영천장북 주간보호센터의 요리활동 모습.

회식 다양한 요리 주제로 실시한다.

영천장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고객의 입맛에 맞는 주제로

요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용고객이 즐겁게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쉽고 맛있는 제철 요리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 행복나눔 봉사단 스타트

## 괴산장북 중증장애인으로 구성



괴산장북의 행복나눔 봉사단이 2016년 활동을 시작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식개선 도모를 위해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을 시작했다.

행복나눔 봉사단은 중증장애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15년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분기별 총 4회의 봉사활동을 했다. 2016년에는 첫 번째로 괴산의 대표 관광지인 산악이옛길을 방문하여

# 장애인 하늘을 날다

## 문경장북, 장애인 짚라인 체험



문경장북 장애인들이 짚라인 체험을 했다.

평소 하늘을 나는 꿈을 꾸던 장애인들이 한 레저스포츠 회사의 지원으로 ‘사랑의 날개’를 달고, 숲이 우거진 겨울 하늘에 하나둘씩 몸을 날렸다.

짚라인코리아대표 정원규 문경센터는 2월 19일 ‘짚라인의 날’을 맞아,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과 문경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등 30명을 초청해 짚라인 체험 및 오찬을 제공했다.

불정자연휴양림에서 시행한 체험은 고소공포증 여부와 체중을 확인한 후, 다 함께 안전띠를 착용하고 산악버스로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이드에게 주의사항을 듣고 시범을

본 후 기초코스부터 중급코스, 최장코스 등 9개 코스별로 1350미터에 걸쳐 4시간 동안 짜릿한 스티를 즐겼다.

참가자 김 모(지체장애 2급) 씨는 “처음엔 무서웠는데 한 두 코스를 타 보니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 조 모(지체장애 2급) 씨는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 비행기 타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짚라인코리아 정원규 대표이사는 “체험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다른 지점에서도 장애인들이 쉽게 짚라인을 즐길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악이 겨울민속축제 행사장 주변 정리 및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행복나눔 봉사단은

지역의 유적지, 관광지 등을 찾아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쳐 깨끗한 괴산을 가꾸어 나가는 데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 정상급 선수부터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까지 축제 한마당



지난해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출발 모습.

### 새로운 강자 탄생 예보

4월 30일 오전 8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레이스,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펼쳐진다.

올해는 4월 24일 런던대회와 4월 말에 있는 일본선수권대회, 하반기에 있을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 대회 참가 준비로 인해 그동안 서울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많은 선수의 참가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우승자의 출현이 예상되며, 순위 싸움 또한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년 연속 대회 신기록을 경신한 스위스의 마르셀 후키 런던대회와 리우패럴림픽 준비로 불참함에 따라 21회 우승 이후 계속 마르셀 후키에게 1등을 내준 호키 노우에 코타가 월계관을 탈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지난 서울대회에서 2위를 기록한 태국의 타나 라왓을 비롯한 1시간 30분대 선수가 최소 5명 이상 출전을 확정함에 따라 선두그룹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휠체어마라톤은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가 달린 경주용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밀어 달리는 스포츠다. 최상위권 선수의 속력은 평지 20~30km/h, 내리막 40km~50km/h로 달리며, 1시간 20분대의 기록으로 폴코스(42.195km)를 완주한다.

휠체어마라톤은 0.01초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다. 속도 조절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지점이 없다. 각자 휠체어에 물통을 부착하고, 안전을 위해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코스는 세계 마라토너들이 질주하기에 가장 좋은 코스로 유명하다. 2013년에는 38초 차이로 세 계신기록에 조금 못 미쳤지만, 1시간 20분 52초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이때를 기점으로 신기록을 기대하는 대회로 한층 성장했다.

이번 대회 참가 예정국은 한국, 일본, 몽골, 태국,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베네수엘라, 가나,

짐바브웨, 코스타리카로 15개국이다. 한국 선수를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자국 선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풀마라톤 한국 여자 선수인 김수민은 2013년 폴코스를 최초로 완주한 데 이어 지난해 자신의 기록을 24분 앞당긴 2시간 8분 54초로 새로 써 큰 박수를 받았다. 그녀의 지속적인 성장세도 주목해 본다.

또 지난해 서울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하프마라톤 우승을 거머쥔 유병훈의 2연패도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추가된 전문 핸드사이클 하프(21.0975km) 종목과 함께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경기(스탠딩경기, 휠체어 출전 불가)로 펼쳐지는 10km 종목이 신설돼 마라톤의 저변을 넓혔다.

### 마라톤 영웅 이봉주 어울림 참여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톱클래스 선수들의 휠체어 레이스 외에도 5km 경쟁(휠체어) 부

문, 비경쟁인 5km 어울림 부문 경기도 펼쳐진다.

5km 경쟁 부문은 전국의 휠체어 선수 500여 명이 출전해 잡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달리며 기량을 선보인다.

5km 어울림 부문은 장애 유

무·나이·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 마라톤어 이봉주 전 국가대표가 참가자들과 함께 뛰며 대회를 응원한다.

### 조직위,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 준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3월 초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http://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광환 조직위원장은 “땀과 노력이 결실을 보는 감동과 환희의 자리,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에 많은 분이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km 경쟁부문 스타트.

### ■대회개요

○대 회 명 :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기 간 : 2016. 4. 27(수) ~ 4. 30(토) (3박4일)

※출발식 : 4. 30(토) 07:40~08:00 (서울잡실종합운동장)

※본경기 : 4. 30(토) 08:00~11:00 (서울잡실종합운동장~성남일대)

○개 최 지 : 서울 잡실종합운동장 일대 마라톤코스(공인코스)

○참가규모 : 15개 국 17,000명(선수 5,000명, 임원·자원봉사자 등)

○대회종목 : 풀(42.195km)/ 하프(21.0975km)/ 핸드사이클 하프/ 10km(장애인·비장애인통합경기)/ 5km(경쟁)/ 5km어울림(비경쟁)

○주 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 육상연맹

○주 관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후 원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 대한육상경기연맹, KBS

○협 찬 : 신한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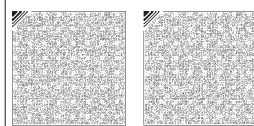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식음료 : 포카리스웨트



대회 시상식.





#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성오 부장

## 관광숙박시설 장애인용 객실 부족

어느덧 콧속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이 되었다. 상춘객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봄을 만끽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기가 왔다. 그러나 장애인은 어떠한가? 어디에 갈지, 가서는 무엇을 사 먹을지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관광지 근처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숙소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지,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 이상은 장애인용 객실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조항을 통해 숙박시설은 0.5%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광숙박시설에서는 1~2실의 장애인용 객실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장애인용 객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전국의 관광숙박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3월 한 달간 실시하기로 했다.

## 전국 관광숙박시설 실태조사 시행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0.5%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관광숙박시설 1,293개소(2014년 12월말 기준)를 대상시설로 실태조사 중이다. 의무 권장사항을 모두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시 관광숙박시설의 결과를 살펴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71.5%, 적정 설치율은 62.5%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전수조사에서 전체 평균 설치율이 67.9%, 적정설치율은 60.2%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이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

다. 2년이 지난 시점의 현재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편의증진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100%로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숙박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장애인용 객실이 1~2개임을 감안할 때 그만큼 장애인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앞장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외에도 장애인들의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관광지 근처 식당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등 다각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모든 장애인이 여행하면서 불편함이 없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3월의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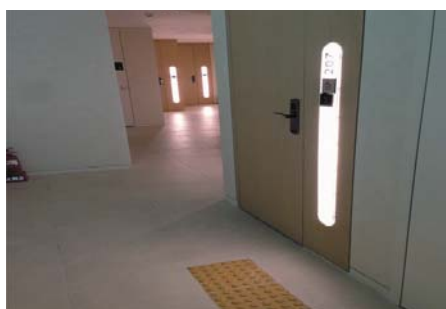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조사할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상시설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관광숙박시설의 주출입구 자동문을 차단해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위험이 있음.



관광숙박시설 객실 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호실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음. 실내 객실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잘못 설치된 예임.



장애인 객실에는 휠체어사용 장애인을 위해 침대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이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편안하게 옮겨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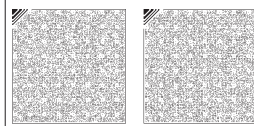


장애인 객실에 설치해야 하는 대변기의 손잡이 미설치.

# 자원메디칼, 장애인 IT보조기기 후원

## 서울시와 협약, 장애인에게 무상 지원키로

소리로 읽는 새보람



서울시와 자원메디칼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대표 제조기업인 ㈜자원메디칼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자원메디칼 측은 2018년까지 3억 원 상당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서울시 장애인에게 후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 상반기 중 자원메디칼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무상 지원한다. 또 계속해서 3년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자원메디칼은 의료가기와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주력 제품인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 및 사

회 참여를 돕는 혁신적인 개발품으로 전 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 밖에 독서확대기, 음성독서기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최영훈 정보기획관과 자원메디칼 유병탁 대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 등이 참석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차로 3천만 원 상당의 음성독서기 30대 전달식을 가졌다.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정보 소외 계층이 세상과 소통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지스텝코리아, 보행훈련시스템 ‘코보레일’

### 뇌병변 장애인 등 안전하게 보행 능력 키워줘

이지스텝코리아는 최근 탈부하 보행훈련시스템 ‘코보레일 R1, R2’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보행 능력을 키워주고, 부드러운 슬라이더와 전후 이동 및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천장 구조물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

치가 가능하며 높낮이 조절이 간편하다.

특히 뇌병변 장애 및 척수손상 등 보행 훈련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하다.

이지스텝코리아 관계자는 “천장 레일시스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천장

형 설치가 어려운 중소형 병원 및 시설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행 장비”라고 말했다.

이지스텝코리아는 다양한 재활시스템을 국내 주요 병원·대학·연구소, 뉴턴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스텝코리아가 개발한 보행훈련 시스템 코보레일.

## 국립재활원, 재활 로봇 심포지엄 개최

### 재활 로봇 보급사업 일환으로 마련

국립재활원(이성재 원장)이 의료재활 로봇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와 재활 로봇 보급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2월 19일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업통상자

원부와 보건복지부 협력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된 재활 로봇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재활 로봇의 상용화 지원제

도’를 주제로 로봇연구와 임상연구 간의 중개를 지원하는 재활 로봇 중개연구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 사업, KOTRA의 의료기기 수출 지원 제도 등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재

활 로봇의 국내의 진출 전략’을 주제로 의료기기 GMP제도 및 IEC60601-1 3.1판 도입 관련 대응방안, 의료로봇 표준화 동향 등의 정보가 제공됐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활 로봇의 보급사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2015년도 보급 로봇인 엔드이펙터형 보행 재활 로봇 및 독서확대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 현황, 2015년도 보급 로봇 활용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재활 로봇 활용 성과 등이 발표됐다.

이성재 원장은 “이번 심포지

엄을 통해 그동안 재활로봇의 보급 및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 로봇뿐만 아니라 병원 등에서 활용되는 의료로봇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산·학·연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손을 잡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의료재활 로봇을 발굴하여 국내외 의료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료재활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장애인 미술, 대중과의 이음

## 서울북부장복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첫 특별전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은 2월 15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장미, 그대와 이음' 개장식을 진행했다.

개장식은 기타리스트인 송형익 한국장애인음악협회 회장이 '사랑의 로망스'와 '고구려의 기상'을 어쿠스틱기타로 연주하며 시작했다.

이날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장순욱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인미술전이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서 열리는 것에 기쁜 떨림을 느꼈다"며 "한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복지관의 힘



'장미, 그대와 이음' 특별전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

을 모아 장애인 문화 발전을 돕겠다"고 전했다.

또 신종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머

리잖아 장애인 미술의 르네상스가 열리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이 이곳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전문가들은 "장애인 미술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됐다", "장애인 미술작가의 수준 높은 실력을 확인했다", "발달

장애인은 독특한 상상력을 캔버스에 담았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전시회를 준비한 북부장복 관계자는 "장애인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관람객이 소장하고 싶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부장복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개최한 이번 특별전은 총 30여 점의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의 다양한 미술작품이 걸렸으며 2월 21일까지 전시했다.

##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창단

### 휠체어 타고 희망의 화음 울린다

국내 최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탄생했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2월 20일 이음센터에서 창단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창단을 추진한 세한대학교 정상일 교수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합창단은 많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은 국내에 없었다"며 "휠체어를

탄 사람이 모여 음악을 통해 공감하고, 세상과 소통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부지휘자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남현 교수는 "합창단 활동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의지를 높이고,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했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단원뿐 아니라 지휘자 역시 장애인

이다. 상임지휘자인 정상일 교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휠체어 탄 지휘자'로 당당하게 재기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바퀴달린 성악가'로 알려진 부지휘자 이남현 교수도 휠체어를 타고 국내외의 다양한 공연을 소화하며 활동을 안겼다.

현재 단원은 70명이며, 향후 100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합창단원의 경우 성악



2월 20일 이음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창단식.

전공자, 교회 성가대나 기타 음악 애호가라면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오는 4월 16일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연주회'에서 비장애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음'을 주제로 첫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오는 4월 16일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연주회'에서 비장애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음'을 주제로 첫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 장애인에게 봄의 소리 선사

### 김포시지회, 기쁜 우리 문화의 날 음악회



김포시지회가 '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포시지회)가 지역 지체장애인과 가족 300여 명을 초청해 봄맞이

음악회를 선사했다.

3월 3일 김포아트홀에서 '제1회 기쁜 우리 문화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음악회는 '봄

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클래식 연주곡과 가곡, 가요메들리 등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들려줬다.

지휘자 황동균과 갈로스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무대에서 베르디의 '개신 행진곡', 주페의 '경기병 서곡' 등 유명 클래식을 연주하며 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베이스 최승혁의 가곡 '넌이 오시는지', '벚꽃노래', 바이올리니스트 김경민의 '지고이네트바이젠'이 울려 퍼졌다. 연주는 1시간 반 동안 봄의 소리를 전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경규 지회장은 "장애인들이 오늘 공연을 통해 즐겁게 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2016 세빛 페스티벌 영상전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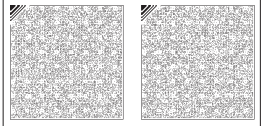
(사)열린세상국민문화운동본부 '2016 세빛 영상 페스티벌'의 상영작품을 4월 15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일터나 가족, 친구와 함께 지내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으면 된다.

공모 자격은 누구나 관계없으며, 참가 형식은 광고나 UCC,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 상영시간은 1~2분 이내이며,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자막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응모 방법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공개 업로드 후 참가 신청서와 함께 게재 위치를 이메일(sevitfestival@gmail.com)로 전송하면 된다. 입상작은 추후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대상 300만 원을 비롯해 최우수작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 수상작은 4월 30일 한강 예빛섬에서 열리는 '2016 세빛 영상 페스티벌'에서 상영되며, 관련 상세 정보는 [www.facebook.com/2015sevitfestival](http://www.facebook.com/2015sevit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열전

## 경기 종합우승...노르딕스키 신의현 MVP 수상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시상식.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난 2월 16일 개막해 19일까지 4일간 강원도 및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경기의 종합우승을 결정지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는 지난해 서울에 빼앗긴 종합순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대회 최종 성적은 경기(21,683점)가 종합우승, 2위는 강원(17,459점), 3위는 서울(14,612점)이 차지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 노르

딕스키에서 총 3명의 다관왕이 탄생했다. 남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3km 좌식에 출전한 신의현(충남)은 13분 55초 1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권상현(전북)은 남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3Km 입식, 최보규(서울)도 남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3Km 시각 경기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3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노르딕스키 종목에 처음 출전한 신

의현은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켜 MVP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아이스슬레지하키 결승전에서는 강원이 경기를 11대 0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국내 최강 자리를 굳혔다.

폐회식은 2월 19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주요 내빈과 선수 및 임원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여해 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 장애인 알파인스키 이치원, 국제대회 동메달

### 2016 용평 IPC 알파인스키 아시안컵대회 대회전 좌식 부문

장애인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이치원(하이원, 36)이 국제대회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한 2016 용평 IPC 알파인스키 아시안컵대회 첫날인 3월 8일, 대회전 좌식 부문에서 이치원이 1분 41초 70으로 3위를 기록하

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전망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상민(국민체육진흥공단, 37)도 대회전 좌식 부문에서 이치원에 0.23초 뒤지며 나란히 4위에 올라 박수를 받았다.

이밖에 2014 소치 동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러시아의 부

가예프 알렉세이와 일본의 스즈키 타케시는 각각 입식과 좌식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2016 용평 IPC 알파인스키 아시안컵대회는 IPC에서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스키협회가 주관했으며, 5개국에서 54명이 참가했다.



2016 용평 IPC 알파인스키 아시안컵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치원 선수가 슬로프를 역주하고 있다. ©평창조직위원회

## 여성장애인 체육 볼링교실 개강

### 스포츠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여성장애인 체육 볼링교실 개강식에서 김천시지회 임직원 및 선수들이 볼링공을 들고 시작을 기념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3월 9일 '2016년 여성장애인 체육 볼링교실' 개강식을 진행했다.

김천시 신음동 유성볼링장에

서 열린 개강식에는 경북장애인 볼링협회장이기도 한 김천시지회 박선하 지회장과 임직원, 선수, 유성볼링장 김춘식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천시지회 여성장애인 체육

볼링교실은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볼링교실은 여성자립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4년째 추진 중이며, 선수들이 성실하게 임하며 사업에 전문성과 활기를 더하고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씩 볼링 전문 코치의 지도하에 시행한다.

박선하 지회장은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생활의 활력소를 얻길 바란다"며, "향상 성실하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 장애인선수 체육연금 확대

장애인선수의 체육연금이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확대된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로 지급하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국제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일정점수(최저 20점) 이상이 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연금을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지난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당시 청와대 환영 오찬에서 연금점수를 적용하는 대회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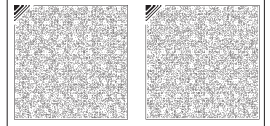
선안이 마련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개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세계 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도 실적에 따라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장애인올림픽대회 4~6위 입상자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24명의 장애인선수가 연금점수를 새로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들의 훈련 동기 유발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국제대회 상위입상으로 국위선양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 아동 위한 ‘로봇 레고 의수’

## 10대 디지털 혁신기술대회 올해의 대상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프랑스의 디지털기술 연구기관 넷익스플로(Netexplo)가 매년 공동으로 선정해 시상하는 ‘10대 디지털 혁신기술대회’에서, ‘로봇 레고 의수’가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로봇 레고 의수는 스웨덴 우메오 대학 소속 디자이너 카를로스 토레스가 연구한 ‘IKO 크리에이티브 의수 시스템’으로, 주요 구성은 크게 배터리, 충전 단자, CPU로 나뉜다.

시스템의 핵심인 CPU에는 신체 절단부의 근육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근전도 신호 센서’가 내장된 것이 특징이다. 이 센서가 근육의 움직임을 읽어 기계 손 부분에 전달하면 착용자의 의도대로 의수를 움직일 수 있다.

로봇 레고 의수는 이러한 물리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기계 손



팔을 잃은 아동을 위한 조립형 의수. ©INQUIRER.net

대신 레고블록 장난감을 팔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해 장애 아동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연결된 장난감도 근육 움직임을 읽어 작동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은 자신의 손을 움직이듯이 자연스럽게 장난감 놀이를 할 수 있다. 레고블록은 다른 레고 부품과 호환되며, 여러 가지 모양, 액세서리와 함께 맞춤형으로 조립

할 수 있다.

토레스의 모국인 콜롬비아에는 내전으로 팔다리를 잃은 어린이가 많다. 비영리 단체들이 의수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지만,

단순히 신체 활동의 기능만 하는 것들이었다. 이를 본 토레스는 놀이적 특성에 맞는 의수를 제작하면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의수 개발 이전에 정형외과 의사, 심리치료사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장애아동의 활동 욕구를 이해하고 의수를 설계했다.

토레스는 “장애 아동이 자신의 의수를 멋진 로봇 장난감으로 인식한다면 자신감이 상승해 다른 아이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레스는 현재 8살 콜롬비아 소년 다리오와 함께 레이저를 발사하는 우주선, 근육 신호로 움직이는 굴삭기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는 올해 말까지 테스트를 끝내고 레고 의수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 캘리포니아 발달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

### 여·야 합심해 약 307만 달러 추가 의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 ©Los Angeles Daily News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달장애인 복지 예산을 약 307만 달러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2월 29일 캘리포니아주의 여·야 양당 의원들은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을 규정한 「발달장애인 동반자 법안(ABX2-1)」을 합심해 의결했다.

이를 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데일리뉴스(Los Angeles Daily News)는 “캘리포니아주의 30만 발달장애인이 그동안 축소됐던 사회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

다”며 “발달장애인의 승리”라고 일컬었다.

이 법안 통과로 증액된 예산은 발달장애인 지원 지역 센터의 관리 직원을 7.5% 증원하는 것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랜더맨 발달 장애인 서비스법」을 제정해 발달장애인이 자립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영리 지역 센터를 형성했다. 발달장애인은 해당 지역의 센터를 통해 돌봄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주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변형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지역 센터의 직원이 대폭 감축되고,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수 중단되거나 폐지되며 복지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복지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투쟁을 주도한 발달장애인 지원 지역 센터 협회장인 앤 서더는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 그룹 홈이 폐쇄되고, 여러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재 바닥으로 떨어진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장애인용 쇼핑 카트 등장

### 미국 유통업체 타깃, 전 매장 비치



통과 캐롤라인 모녀가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이용하고 있다. ©styleblueprint

미국 유통업체 타깃(Target)이 미국 내 전 매장에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비치하기로 했다.

2월 12일 폭스8뉴스에 따르면 타깃은 3월 19일까지 미국 내 모든 매장에 장애인용 카트인 ‘캐롤라인 카트’를 1대 이상 비치한다고 보도했다.

이 카트는 지체장애인 팔을 둔 어머니 드류 앤 룡(47)이 발명했다. 카트는 그녀의 딸 이름인 캐롤라인을 그대로 썼다.

룡은 보호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가족과 마음 편히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고, 수많은 실패 끝에 이 카트를 개발했다.

이 카트는 뒷부분에 따로 공간이 있어 무게 113kg 이하인 사람까지 태울 수 있다. 장애인 동반자는 장애인과 마주 보며 쇼핑할 수 있다.

룡은 “타깃뿐 아니라 모든 유통업체가 매장에 이 카트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 성황

## 구직상담에서 취업 적응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



‘2016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3월 9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 취업 및 채용 확대를 위한 ‘2016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3월 9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누리홀에서 열렸다.

서울지역 직업재활 네트워크 유관기관 ‘도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강서뇌성마비복

지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 120여 명과 25곳의 구인업체가 참가했다.

서류전형과 1차 면접을 통해 경비직과 주차관리직, 사무직, 콜센터 상담직으로 장애인 24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향후 구직자 49명이 2차 면접을 앞두고 있어 취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면접 외에도 구직상담, 이력서 작성 컨설팅, 무료 증명사진

촬영의 부대행사를 마련해 장애인 취업을 지원했다. 그밖에 추천을 통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해 구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박람회를 주최한 행사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와 유관기관, 단체를 비롯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직업재활 네트워크 유관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인·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87.7% 채용과정 차별 체감

###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장애인 구직자 514명, 취업자 52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통한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87.7%가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차별받는 이유로는 경증의 경우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서’가 28.4%였다. 또 ‘시험 또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18.5%, ‘구직정보 자체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울 때’ 13%, ‘면접관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13% 등이 나왔다.

중증 또한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서’가 24.6%로 가장 높았으며, ‘시험 또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

지 않아서’ 23.1%, ‘구직정보 자체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울 때’ 21% 순서였다.

차별은 상여금과 복리후생에도 존재했다. 어려운 조건을 풀고 취업한 이후에도 동일한 일을 하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게는 기본급을 낮춰 지급하는 경우가 19%나 됐다. 더불어 장애인 직원에게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 15%였고, 11.4%가 경조비, 건강검진 등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비장애

인에 근로자보다 차별을 봤다.

회사의 교육훈련에서도 차별을 느낀 경우가 60.1%였다. 모든 교육, 훈련, 연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도 19%였다.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으로는 ‘법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퀴즈

1. 지장협은 3월 7일 400여 명의 조직원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실천전진대회를 열고 총선에서 장애인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장애인 대표를 추천할 것을 결의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2.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날짜는?
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 독자의견

신설된 ‘시선8616’ 코너를 통해 지장협과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인물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최상국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 정답

30  
4월 13일

### 당첨자

경북 안동시	안윤도
광주 북구	김신하
서울 강서구	최상국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리하는 아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향료를 원료로 천연화장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을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분좋은, 달콤한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결향, 천연비누,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인군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합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 민원상담 /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보)



## 고령자고용지원제도

Q) 어려운 취업난 속에 생소한 제도인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고령자고용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로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이중 업종별로 일정비용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지원기준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18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정년연장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정년연장으

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제도로 선정기준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근무 후 정년이 도래했지만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년을 1년 이상 3년 미만 연장했을 경우에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했을 경우에는 1년간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Q) 말씀하신 위의 3가지 이외에 지원내용은 없는지요?

A) 아닙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사업 유형에 따라 만 60~64세도 가능) 중 전국형과 지역형 기초연금수급권자에 한하

며,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전국형은 월 3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한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해 안부확인, 말벗활동 및 생활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지역형은 월 30~35시간의 활동을 한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륜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환경개선, 학습지도 및 공공기관 업무지원 등의 활동을 합니다.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 창출하는 일자리입니다.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추가로 얻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일자리를 운영합니다.

끝으로 인력파견형은 구인자의 요구에 따라 구직자를 파견해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인력이 퇴직 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활동수당은 월 33만 4,800원(월 20일, 1일 3시간)과 간식비 월 2만 원을 지급하며, 민간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재향경우회, 노인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Q) 퇴직 후 창업을 원하는 분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은?

A)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사업으로 시니어 기술창업스쿨과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통해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시니어 기술창업입니다.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에게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주관 기관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또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방문하거나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베이비붐세대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병원, 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교육·상담과 회계 등 행정지원, 금융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 기준으로 월 8회 20만 원, 월 16회 40만 원의 활동 실비를 제공하는데 1인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사업장  
참살이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 행사 사은품 및 홍보용 물품

고객님이 원하시는  
문구/이미지를 넣어 드립니다.

**구입 및 문의처**  
053-615-0506, 053-615-0565  
쇼핑몰 www.eroll.co.kr 홈페이지 www.fiveman.co.kr

향균물팩

향균3중세트

향균선물세트

향균위생장갑

벽시계(소)

연필꽃이 시계

천연비누 4구

천연비누 9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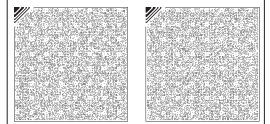
원목갑받침대

모니터 받침대

벽시계(대)

추시계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종교법인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고찰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설지원부 나광석 부장

## 왜 종교사회복지인가?

복지활동 중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종교기관이나 인물이 주관하는 것까지도 종교활동처럼 느껴질 정도로 복지는 종교와 불가분리의 성격을 지닌다.

2015년 12월 현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등록된 전국 장애인복지관 214개소 가운데 86개 즉 40%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성종교는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체제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직체제와 제도적 장치는 사회복지활동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인도주의에 토대를 둔다. 종교가 제시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의 선이 근대사회복지의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종교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념의 근본 바탕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복지제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사회복지적 역할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학교	직접	기타
개신교	불교	천주교					
27	23	36	58	57	3	5	5

〈표 :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해왔고, 종교계에서도 사회복지가 종교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선교나 포교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동안 고찰된 종교사회복지 이론은 대체로 각 개별종교 사상 또는 교리를 복지사상에 연계한 것이고, 종교사회복지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활동이고, 그 운영주체가 종교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이점은 종교 사회복지의 개념이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 종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실천적 노력”,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종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복지서비스”, “종교적 이념의 실천에 의한 사회복지활동”등으로 정의되어 온 데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그 복지활동의 내용을 해당 종교 이념의 구현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회문제에

대한 종교적 대응 활동으로 볼 것인지는 복지가 종교의 수행 방식의 하나인가 아니면 종교의 수행 목적의 하나인가의 차이를 가져 오거나 전자는 종교 교리 실천적 측면을, 후자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종교 사회복지의 개념이 실천과 책임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종교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주로 종교 이념, 예컨대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와 같이 기성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천에 편중되어 있었고, 종교윤리도 종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윤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종교적 책임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종교사회복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구제와 봉사요약되는 자선사업인가 아니면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종교적 책임의식의 구현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사회복지기관들은 각 기관마다 종교와의 관련성이나 사회복지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사랑이나 자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종교적 시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장애인당사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가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의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향후 장애인당사자 단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당사자 단체 당위성

첫째 종래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사회사업가, 종교인, 사회적 명망가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에는 국가가 운영재정을 전액지원하고 전문가 또는 당사자 단체에서 국가사업을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전문성 및 당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장애인단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장애인들은 그들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자립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최우선적 욕구를 실현하고자 지역복지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장애인들의 요구와 이들의 즐거운 노력에 의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으로 그 운영 또한 마땅히 지역장애인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셋째 장애인단체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자원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려는 목적은 수탁 시 시설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장애인당사자 고용창출효과, 회원 서비스의 개별화, 자립지원사업의 현실화, 시설활동의 효율성 등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넷째 일부 종교단체가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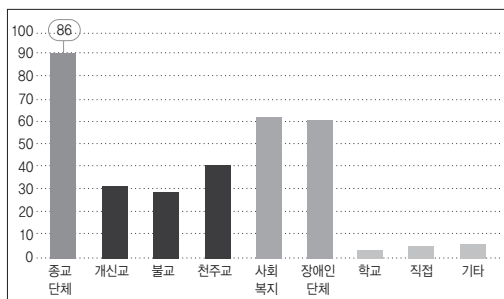
종교 시설화되고 있으며(정부의 복지시설물을 특정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당성), 장애인의 욕구와는 매우 상반된 재활프로그램 진행과 시설활동으로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객체가 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을 자립지원 측면보다는 시혜적이며 동정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장애인단체는 지역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주권 실현과 당사자주의를 실천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지역에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 결론

종교와 복지의 관계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보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복지활동에서 종교는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종교가 막대한 동원자원을 기반한 거대권력으로서 설립이나 위탁을 독점하는 비판이나,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면서도 사회복지를 종교전파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종교사회의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장애인단체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원초적 욕구는 매우 양하고 인권적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대다수는 장애인 욕구와는 거리가 먼 편익물적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지역 장애인단체 중심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용자의 정서에 맞도록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가, 장애인 복지 문제는 장애인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운영하는 주체 역시 장애인당사자단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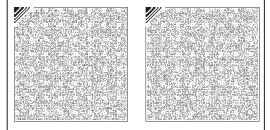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3호 2016년 3월 21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지장협 역사는 장애인당사자의 것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 지장협과의 만남

대학을 졸업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 장벽에 번번이 가로막혀 좌절하던 저를 길을 가다 우연히 용산구 남영동에 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무작정 들어가 고(故) 장기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의족을 했지만 당당한 기품의 회장님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고심 끝에 1990년 8월 27일 지장협에 입사했습니다. 그 날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 들불처럼 번진 지장협 전국화

당시 지장협은 전국의 모든 곳에 지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국 부장으로 일하며 장애인 조직화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장애인운동을 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국립집에서 따끈한 순댓국을 팔아먹으며 장애인으로서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한편 장애인복지 발전을 향한 꿈을 나눴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통한다고 하지요. 힘 있는 장애인단체를 건설해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픈 지장협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동지가 한 명 생길 때마다, 지회가 한 곳씩 더 만들어질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 장애인당사자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뛰는 일, 이 일이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장협에 들어온 이후 장애인복지지는 제 삶의 과업이 되었습니다.

## 장총련과 장고협의 탄생

1990년대 중반 지장협은 전국 조직으로서의 규모와 체계를 갖춘 후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해 각 장애유형 및 분야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장협은 다른 장애인단체를 설득하는 것부터 연합단체의 기틀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유형이 다른 만큼 차이가 컸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다 같은 장애인당사자임을 강조하며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통합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결성됐습니다.

저는 장총련의 사무총장을 맡아 창립총회를 준비했습니다. 1996년 9월 11일 장총련 창립총회.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변혁을 꿈꾸었습니다.

이후 1999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1994년 지장협 교육훈련부장 재직 당시 김광환 중앙회장.

터졌습니다. 고용촉진법과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있어 고용촉진법은 포괄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고용하는 반면 직업재활법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발하는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커지며, 노동부 산하 장애인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 3월 5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가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고협 사무처에서 교육홍보부장으로 근무하며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안착시키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복지관 운영의 모델이 된 북부장복

이즈음 지장협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내건 장애인복지 사업의 중요한 실천기지로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북부장복)을 수탁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북부장복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2003년에는 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북부장복에서는 시설을 표준화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시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공통된 교본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든 매뉴얼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인 지장협에서는 협회 산하 복지관을 수탁할 때마다 매뉴얼, 운영 프로그램 등 시설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북부장복을 모델로 설계했습니다. 북부장복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북부장복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2005년 8월, 저는 장고협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당시 장고협은 5억2,700만 원에 달하는 빚이 있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처는 7년 10개월 동안 모두 힘을 합쳐 이를 청산하고, 11억 원의 협회자금을 조성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는 지장협

그리고 2013년,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놓은 곳, 우리나라 장애인당사자운동의 시발점, 바로 지장협 중앙회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세였던 선거 판세를 뒤엎고, 중앙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 협회 미션을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으로 정했습니다. 지장협은 그 이후 투명성과 청렴성, 전문성을 실천하기 위해 '클린 지장협'을 선포하고, '윤리강령'을 산하조직에 내걸었습니다. 또 각종 회의와 협의체를 운영해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지장협은 2015년 협회 산하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에 지역별 인권위원회를 개설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할 인권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후 전국 장애인 인권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인권교육을 시행했고, 이를 지역에서 활용하며 상담과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장협은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 지장협은 2015년 적극적인 체육 활동과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이하 지장체)를 창립했습니다. 10월 8일 지장체 발기인총회 날, 저는 1만여 명의 회원 앞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되며, 지체장애인의 체육 활동 활성화와 통합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장애인에게 체육은 여가활동을 넘어 생활의 과정이며, 중요한 소통의 통로입니다. 지장체는 앞으로 전국 시·도지체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지체장애인체육회를 차례로 설립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체육지원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

2016년 올해로 지장협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장애인복지가 척박하던 1980년대부터 장애인당사자주의의 기반을 마련한 조직, 장애인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 온 조직, 그리고 장애인 대중의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당사자단체, 그곳이 바로 지장협입니다.

우리 지장협은 전국 조직망을 탄탄하게 구축했으며,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당사자단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독심 있게 장애인복지의 한길을 걸어온 30년간의 역사를 기억하며,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장애인 동지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동지들의 힘을 믿으며 달려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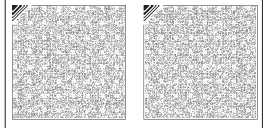


2013년 6월, 지장협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 장애계인사이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연숙 원장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특수학교, 더 많이 지어야 하나?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리는 것 같다.

예전에 TV 뉴스에서 장애학생 어머니의 힘든 학부모 생활을 취재해 보도한 적이 있다.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또 만원 지하철

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못 타는 상황도 수시로 겪어야 했다. 자녀가 학교에 도착해서도 부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분포현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리포트를 마쳤다. 이 뉴스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학생 자녀를 일반 학교로 전학시켰는데,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교육서비스가 부족해 특수학교로 돌아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를 'U턴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대부분 특수학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을까?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제24조에서 '교육'을 다루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UN장애인권리협약은 통합교육 보장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장애인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격리교육'이기 때문에, UN장애인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는 특수학교를 줄이기 시작해 종국에는 모두 없애고 통합교육으로 대체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

협약에 따라 2011년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결과 24조와 관련해 'U턴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U턴 현상'의 배경은 간단하다. 그것은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과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바로 이 문제, 즉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매우 당연한 권고이다.

오스트리아는 2012년 7월부터 '장애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 2012-2020'을 채택해 시행 중이다. 현재 오스트리아에도 특수학교가 존재하는데,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

해 늦어도 2020년까지 모든 특수학교를 없애 예정이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발생한 현상만 피해 가는 것은, 옳은 대처방법이 아니다.

특수학교의 격리교육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며, 이것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처럼 모든 특수학교를 없애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하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특수학교가 없어지고, 모든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 현장의 눈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 이선덕 사무국장



## 자원연계에 당당하자

종사자로서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할 의견을 이용고객으로부터 들었다.

복지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업을 쏟아낸다. 이용고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프로그램 수대로 이용료를 각각 납부하다보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이용고객에게 복지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내부지침을 알려드리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선 마무리했다. 이러한 고충을 매번 들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러면서 고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 확보에 대한 교육자료와 성공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라면 한번쯤은 접해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다. 여러 가지 재원 중 후원금 확보에 대한 생각과 자료를 6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기관의 미션(작게는 실행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자원개발을 왜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는지를 인지한 후 내 자원개발 행위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에 미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집념력과 일맥상통하며, 개발을 통한

열정 소진이 아닌 성취를 통한 열정 증가 효과를 보아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 실천가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재원과 환경에 한정하지 말고 변화하는 지역사회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풍부한 감성이 필요하다. 잠재된 자원을 우리 기관으로 연계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 전제조건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강점은 우리의 실천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를 자원가와 공유할 수 있는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마인드다. 이 시대는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달라질 정도로 정보의 시대이다. 자원개발을 위한 상대 분석과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또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여섯째,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배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마케팅기술과 우리가 실천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홍보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느냐는 질문에 나부터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적극적인 자원개발이 이용고객과 지역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고민하고 집착하고자 한다.

3월이면 장애인복지 현장에선 겨우내 준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시기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용고객에게 정보제공을 통해 자기결정 기회를 부여한다.

우리 복지관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용고객과 보호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했다. 강당이 꽉 차고 넘쳐 복도까지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할 정도였다. 여기서 나는 사회복지



## 복지마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이끄는 리더의 조건

지금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의 가치를 내건 장애인당사자주의는 필연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요구한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치세력화란 자신이 속한 계층 또는 집단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활동이다.

장애인당사자주의가 대두하기 이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치료를 통한 정상화와 비정상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 머물렀다.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확장한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위한 정책 실천을 국가의 의무로 전환했다. 이러한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정치세력화다.

그동안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장애계는 각 정당과 후보에게 장애인 정책공약을 전달하는 한편, 장애인당사자를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장애인당사자가 지방의회와 지자체단 체장은 물론 국회에도 진출하며 장애인정치세력화의 진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 대한 성과는 아직 그리 크지 않다. 정치에 들어선 장애인당사자들은 정당정치의 높은 벽과 수직 열세를 실감하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로이 담아내지 못했다.

이제 장애계는 한 단계 성숙한 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요한 선택 지점에 들어섰다. 장애인당사자로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개인적인 장애 극복과 성공의 감동스토리보다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이러한 리더의 조건은 먼저 장애인당사자여야 한다. 장애로 인한 편견과 높은 장벽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활동해 온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해 장애인복지 정책에 중요한 목소리는 내는 것이 당연하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복지서비스라면 애초에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할 리더라면 장애계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척박한 시절부터 장애인복지의 외길에서 아무리 힘들고 서러워도 한눈팔지 않고 걸어온 독심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진정

성이다. 개인의 열정이 목적이 아닌 우리나라 500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라면 장애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지지를 끌어 내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장애인정치세력화는 장애인당사자를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계층 의식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장애인당사자로서 장애대응을 기반으로 지지와 인정을 받는 장애인 정책을 펼치며,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탄생에 기대해 본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재 필리버스터 등의 혼란을 치르고 나서야 각 정당은 선거 모드로 들어간 모양새다. 바야흐로 총선 정국이 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의 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직능 비례대표 의원 수는 19대 국회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 전략은 물론 국회 입성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노리는 각 계층 또는 집단의 행보도 빨라졌다. 장애계도 마찬가지다. 이 시기에 다

## 리더스토리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임순봉 협회장



## 인천에서 장식한 지장협 30주년의 첫걸음

비하는 대화를 미숙함 없이 치러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인천지장협 임직원은 의기투합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보완해가며 점차 대회 준비를 해나갔다. 계획대로 행사의 윤곽이 선명해질수록 자신감은 커졌고, 귀한 손님맞이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행사 당일, 전국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수단이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당당하게 입장했다. 그 순간 힘들었던 준비과정과 장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그리고 행사 하루 전 늦은 시간에 시 관계자가 전화로 유정복 인천시장에 공무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고 전한 일이 떠올랐다.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를 환영하는 인천시장의 인

사를 통해 인천지장협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중앙부처 회의를 마치고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을 환영하겠다고 달려왔다. 시장은 "장애인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전국 지도자들의 박수가 터지며 행사장을 달궜고, 진심으로 시장께 고마움을 느꼈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지장협이 30주년 기념사업의 계획을 밝히며, 협회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9세기 프랑스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라마르틴은 '역사는 모든 것을, 미래까지도 가르쳐 준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지장협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은

장애인복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임을 나 또한 확인한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의 지도자들이 협회 역사를 정리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음을 느꼈다.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서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온 지장협은 앞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자활자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그 가운데 인천지장협은 조직의 매끄러운 톱니바퀴가 되어 매순간 일보전진, 이보전진을 돕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장애인복지 발전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 때 지장협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능력

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신 황우여, 홍일표, 박남춘, 윤관석, 최원식 국회의원,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인, 이영환 시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박진표 동구 부구청장, 그리고 후원을 해 주신 (사)수화진의 사랑더하기 안상수 대표이사장, 정호연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장, 조병호 장애인생활신문사 대표,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수상한 강원도 케이티인천법인 지사장, 김종석 수화진의 사랑더하기 후원회장, 임순봉 와! 봉사회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 행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저우내 움츠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싱그러운 봄기운을 느끼며 활기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설립된 지 27년,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경제살림이 어렵다는 인천에서 '2016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가 열렸다. 400여 명의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1월 21~22일 인천에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통한 사회변혁을 다짐했다.

인천지장협이 대규모의 전국 대회를 개최한 것은 실로 처음이었다. 작년 8월 대회 개최를 결정한 후 우리는 전국 지도자들의 이목이 인천을 향하고 있다는 중압감과 처음 준

2016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 제24회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6년 4월 30일(토)오전8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풀 | 하프 | 10km | 5km ※비장애인 10km참가가능

# SEOUL 2016 WHEELCHAIR MARATHON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